

# 외암리 전통민속마을 원형 탐구

길준호\* · 심우경\*\*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조경학전공 · \*\*세계상상환경학회

## I. 서론

우리의 전통마을은 일반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배치 형태로 산기슭의 경사면 양지바른 곳에 남향을 두고 자리를 잡는다. 이러한 배치는 후면에 산을 두어 방풍립과 풍치립의 역할을 함은 물론 조상의 묘자리와 토속적 신앙의 영역이 되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생활에 필요한 재료, 빨감, 먹거리를 제공하며, 수원을 함양하여 풍부한 물공급을 가능하게 한다(신상섭, 1999).

주거지의 배치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형태를 보이는데 전방의 시야가 트여진 완경사지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받아들이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며, 남향배치를 통해 계절별 태양의 고도차에 의한 미기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배치형태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마을의 자리잡기는 그 영역을 배후지, 주거지, 경작지로 설정하여 축과 위계속에 그 흐름이 반영되고 전개된다. 일반적인 배치 형태는 배후지, 주거지, 경작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흐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땅이 배산임수, 남사면, 전저후고의 형태를 가질 수는 없으며, 한국 풍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완벽한 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방비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인 비보가 잘 발달했다는 것이다(한중구, 2014). 땅이 갖고 있는 모습이 좌향에 불리할 경우, 불리한 자연 조건에 적응하고 열악한 부분은 비보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을 마을 안팎으로 조성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왔다(전중환, 2006).

지금까지 외암 전통민속마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좌향 등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외암마을에 대한 연구, 생태적·경관적인 관점에서 전통마을 수공간에 대한 연구, 건재고택 등 개별 주택정원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외암리 전통민속마을의 조성 초기에 타지에서 들어온 외암 이간선생이 어떻게 원마을 주민들의 터세 속에서 외암마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공간구조 특성과 단계별 조성 원형과 연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외암 전통민속마을을 대상으로, 외암기(巍巖記),

1723년)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와 현장사진 촬영, 주민인터뷰가 병행되었다.

외암 이간(李柬)선생이 작성한 외암기(巍巖記)는 외암 마을의 인문·지리환경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300여 년 전 외암리의 초기 조성 모습을 재구성하고, 선행연구에서 보여진 외암마을의 형성연대와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기 위한 비보적 요소는 없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외암민속마을보존회 회장, 임원 등 주민인터뷰를 통해 구전으로 내려오는 외암마을의 초기 모습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속마을 중 실제 주민이 거주하며 그 맥을 잇고 있는 외암민속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 조성된 시점의 사료를 통해 민속마을의 입지와 관련된 원형에 대해 탐구 고찰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I. 결과 및 고찰

외암마을에는 원래 여러 성씨가 살고 있었는데 조선 명종(1545~1567) 때 예안 이씨 이사종(李嗣宗)이 세 딸만 둔 진한평(陳漢平)의 첫째 사위가 되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 후손 중에서 많은 인제가 배출되자 차츰 예안 이씨를 중심으로 하는 동족(同族)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 경종 3년(1723)에 이간(李柬)이 쓴 외암기(巍巖記)에 따르면 외암마을은 마을 주변의 오산(五山)과 오수(五水)의 자연환경에 따라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산(五山)은 광덕산(廣德山), 설악산(雪嶽山), 송악산(松岳山), 월라산(月羅山), 면잠산(眠蠶山)을 말하며, 그 중 현재는 설화산(雪華山)으로 불리고 있는 설악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설악산의 한 기슭은 광덕산으로부터 나와 북쪽으로 잇달아 뻗어 있다. 그 가운데 문득 오봉이 다른 봉우리보다 높이 솟아 올라있는데 그것이 곧 외암리 진악이요, 그 서쪽으로 비탈진 곳으로 물이 흐르고, 나의 오래된 집이 실제로 그 위에 있었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터전을 굳게 잡았다.

외암마을의 지형조건은 전체적으로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흐

르는 동고서저형으로 설화산의 완만한 경사지에 농경지를 끼고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통마을의 배후지-주거지-경작지의 축이 아닌 배후지-경작지-주거지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사)외암민속마을보존회 임원 이름 이양선 씨(77세) 등의 주민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마을이 입지한 곳은 과거에 돌밭이었고 잡초가 무성하여 뱀이 자주 출몰하였던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설화산 증턱에 풍화되어 흘러내리는 돌과 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집터를 조성하면서 걷어낸 돌을 모아 만든 돌담뿐 아니라 경쟁 마을인 역촌리와외의 대항 민속놀이인 돌팔매질싸움의 기록을 통해서도 돌이 굉장히 흔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을 주거지로 선택했던 것은 논과 밭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의 습한 기운을 피하여 배수가 잘되는 현재의 지역에 주거지를 배치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질 조건은 마을의 물길조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마을주민들은 인공수로가 조성된 것이 외암 이간의 둘째아들 이병(顯炳)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천문지리에 박식하였고, 특히 지관에 밝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당을 찾는 일에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외암마을의 인공수로는 첫째, 설화산이 화산(火山)이어서 화기가 나온다는 것이며 이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둘째, 마을이 입지한 곳이 과거 돌무덤 등으로 인해 기(氣)가 썩 곳으로 그 기를 누르고자 물길을 조성한 것이다. 장승 근처의 송림 속에 있는 무덤 앞에 수로를 일부러 만든 것도 풍수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외암마을은 동고서저형의 서향배치로 북서계절풍에 있어서 불리한 터이다. 이에 설화산과 이간 선생의 묘소를 잇는 능선상의 소나무 숲이 마을의 우백호로 조성되어 지형적으로 불리한 마을의 입지를 비보하고, 마을 북쪽에 위치하여 방풍림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풍수적으로 내수구(內水口)와 외수구(外水口)를 온전히 갖춘 곳이며, 내수구에 수구막이로 동산을 만들어 송림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수구의 범람이나 액운을 차단하기 위해 장승이 위치하여,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장승제를 통해 그 의미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마을 곳곳에 조성된 다양한 종류의 숲을 볼 수 있다. 마을길을 따라 곳곳에 가꿔진 노송들과 개별가옥의 상록수는 비보의 보충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서향 빛을 차단하는 등 미기후를 조절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조성된 송림과 장승, 마을 중심부에 느티나무 당산목은 마을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신앙요소로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신앙적 축선에 산신당을 조성하여 설화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안녕을 기원하며, 생활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의 입지와 관련된 원형에 대해 탐구 고찰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암리 전통민속마을은 한국 풍수의 특징 중의 하나인 완벽한 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방비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인 비보가 잘 발달했다는 것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통마을의 배치형태와는 다르게 경작지 아래에 주거지를 배치하고, 동고서저의 서향배치를 보완하기 위한 마을내에 수림을 조성하고, 주거지내 미기후 조절을 고려하여 서측에 상록수를 식재하였다. 또한 마을의 강한 기운을 제압하고자 물길을 조성한 것이다. 아울러 장승, 당목, 산신당은 마을의 신앙요소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300년 전 외암 이간선생의 '외암기', 민속마을 형성 자료와 관련된 연구, 주민인터뷰를 바탕으로 원형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관련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더 면밀히 현재의 지리적 변화에 있기까지 연대별로 형성되어온 시간의 흐름속의 마을 확장의 공간변화 과정을 함께 탐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수진(2010)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pp.97-112.
2. 남승희, 김용기(1999) 외암리 민속마을의 수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1): 60-69.
3. 장승상, 이은성(2005) 외암리 민속마을의 생태적 맥락과 장소성 연구 -수공간과 장소의 상호작용 및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추계학술논문. pp.79-86.
4. 신상섭(1999)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환경설계원칙(상). pp.78-85.
5. 신상섭(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서울: 도서출판 대가. p.22, p.26.
6. 신상섭(2011) 아산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문화재 44(1): 30-51.
7. 안병철(2009) 전통마을 방죽의 종합적 가치분석 및 활용방안. pp.129-138.
8. 윤종빈(2009) 외암기에 나타난 외안 이간의 생애와 학문. 대동철학회 47집: 137-161.
9. 이간(1723) 외암기.
10. 이원호(2009) 외암리 민속마을에 나타난 한국정원의 전환기적 양상. 문화재 42(1): 100-121.
11. 전중환(2006) 민속마을 외암리의 경관 원형과 경관 동학. 문화역사지리 18(2): 38-56.
12. 정동섭(2010) 외암마을의 공간구조에 따른 수공간 이용 특성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2): 23-44.
13.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2007) 아산 외암마을 호서선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민속마을. 서울: 대원사.
14. 한중구(2007) 외암마을 이참판댁 입지 및 공간배치의 풍수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지 16(4): 9-15.
15. 한필원(2004)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2. 서울: 북로드. pp.210-239.
16. 한필원(2011)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p.432-453.